

로마서 5장 9-10절 (1)

- 읽을 말씀 롬 4:25, 5:9-10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한 참되고 온전한 복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견인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 두 종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주장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과, 존 웨슬리가 주장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구절들입니다. 5장 9-10절은 전자를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편을 설득하는데 결정적이고 만족할 만한 답을 찾기 위해 씩씩하며 연구한 결과 먼저 4장 25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25절을 설명하고, 5장 9-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 로마서 4:25 - “예수는 ...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1) 전통적인 견해

이 견해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주었는데, 부활하시지 않으면 속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부활은 속죄가 받아들여졌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일까? 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2) 새로운 견해

권연경 교수님은 이 구절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 자체는 옳지만 이 구절에서는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먼저, 로마서 4장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처음 믿을 때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나(롬 6:17-18)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다루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이 구절은 처

음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호해주셔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5장 9-10절에는 “더욱”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에 비교해서, 부활이 주는 새 생명을 통한 순종으로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피보다 순종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믿는 자의 순종은 율법의 행위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갈 3:10). 그런 불완전한 순종 때문에 얻는 궁극적인 구원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를 상대로 “더욱”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호로 볼 때 훨씬 잘 이해되고 자연스럽습니다.

3) 나의 견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2)는 자백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심판 날에만 변호하시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순간부터 대언자이십니다. 그리고 처음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용서받아야 할 죄가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변호는 심판 날과 구원받은 후 자백할 때뿐 아니라 최초의 칭의에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 7:23-25)**는 예수님의 변호가 ‘아직의 칭의’ 는 물론 ‘이미의 칭의’ 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확실히 보여줍니다. 아직의 칭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구절에 나오는 “구원” 은 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자백할 때 예수님의 증보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뜻한다고 단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에 나오는 “구원” 이 단지 자백할 때 주어지는 죄 사함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 받는 구원을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롭다 함을 받은 이후 자백을 통해 죄 용서받는 것을 과연 “구원” 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구원을 날마다 혹은 자주 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자백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을 구원 혹은 구원하신다고 표현한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7장 25절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19)”** 와 비교해보십

시오. 우리는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함을 알고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때 얻게 되는 것은 단지 자백을 통한 죄 사함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셋째, 다음 장인 8장에서 저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와 그로 인해 세워진 새 언약을 설명했습니다(참조. 히 8:7-13). 새 언약은 복음이고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이 구절의 “구원”은 단순히 자백을 통한 죄 용서가 아니라 구원을 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궁극적인 구원 때만 변호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을 때도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을 통해, 4장 25절 후반절이 처음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호해주심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로마서 5:9-10 -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 요한일서 2장 1-2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을 통해 마지막 심판 때뿐 아니라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이 변호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4장 25절 후반절이 처음 믿을 때 주님의 변호를 통해 의롭다 함 받는 것을 뜻함을 알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장 10절에서 가장 난해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인데, “부활이 주는 새 생명”으로 이해하는 것과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 받는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해석 모두 설득력이 있어 어느 견해가 옳은지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서 4장 25절 후반절이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 의롭다 함 받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8장 33-34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호를 궁극적

인 구원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5장 10절의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를 같은 의미라고 보는 것이 가능해졌고, 부활하신 주님의 변호를 뜻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은 본문 자체에도 나타나 있는데, 바울은 9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했고, 10절에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죽으실 때 흘린 피로 의롭다 함을 받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것이 ‘피’ 입니다. 이를 통해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가 아닌 “그로 말미암아” 가 더 구체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는 문자 그대로 “그” 즉 사람 자체를 가리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변호해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5장의 후반부(12-21절)는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이 시작되는 12절이 “그러므로” 로 시작하기 때문에 전반부의 내용도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는 부활하신 주님이 심판 날 변호해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바울이 왜 이 구절들에서 “**더욱**” 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 이고 하나님의 ‘원수’ 였는데 예수님의 ‘피’ 와 ‘변호’ 를 통해 ‘의롭다 함’ 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심판 날 다시 변호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과 원수를 위한 변호도 효과가 있었는데,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케 된 우리를 위한 변호는 더욱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바울이 거듭 “**더욱**”이라고 쓴 것입니다.

● 나눔과 적용

복음과 함께 복음의 일부이며 진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견인의 교리입니다. 영혼의 사활을 가를 수 있는 이 진리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설교와 말씀 읽기를 통해 바른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내 삶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나누어봅시다.